광주시당위원장 합의추대 내일 결정

민주 지역 국회의원들 회동 최종 의견 조율키로
강기정-김재균 입장 엇갈려 해결책 찾을지 미지수

차기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물밑 경쟁전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국회의원들이 오는 27일 회동을 갖고 광주시당위원장 합의 추대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 국회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로 광주시당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기 어려운데다 경선 참여를 선언한 강기정, 김재균 의원의 입장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25일 민주당 김영진, 김동철, 조영택, 장병완 의원 등은 회동을 갖고 광주시당위원장 합의 추대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시당위원장 도전에 나서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날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고 박주선 의원은 지역 일정으로, 이용섭 의원은 청문회 일정 등으로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이날 회동에서 광주 국회의원들은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과열 양상이 빚어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된다는 입장과 함께 가능하다면 합의 추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강기정, 김재균 의원을 제외한 광주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광주시당위원장 합의 추대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6명의 광주 국회의원들이 특정 인사를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추천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일부에서 당원 행사 등과 관련, 과열 및 경선 후유증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건강한 광주시당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균 의원도 "6명의 광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통해 시당위원장을 추대한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당헌 당규에 시당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고 적시돼있고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권과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이처럼, 강기정, 김재균 의원의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광주 국회의원들이 27일 회동을 통해 광주시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한다고 해도 최종 성사 여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광주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광주시당위원장의 합의 추천할지도 미지수다.

강기정 의원이 주류 측을, 김재균 의원은 비주류 측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광주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엇갈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합의 추대로 광주시당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헌 당규에 적시된대로 경선을 통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합의 추대하는 것은 당원과 대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끼리 시당위원장을 정한다는 것은 정당의 근간인 대의원과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이 있더라도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권주자들 "호남 민심 잡아라"

손학규·천정배·김효석·정동영 잇단 광주·전남 방문

10·3 민주당 전당대회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당권 도전 후보들이 광주·전남으로 몰려들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의 민심을 파고드는 등 대의원 비중이 적지 않은 광주·전남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손학규 전 대표와 천정배 의원이 25일부터 2박3일 동안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당심과 민심을 청취중이다.

손 전 대표는 25일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한 뒤 2박3일 동안 지역 대의원 대회가 열리는 지역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천 의원도 이날 여수를 방문, 대의원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천 의원은 이날 여수를 시작으로, 2박3일 동안 광양·고흥·나주 등 지역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해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26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진보세력과의 대연합 모색에 나선다. 정 고문은 이날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민주진보세력, 2012 정권교체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 고문과 호남정치학회와 전남대학교 아태연구소, 광주·전남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 등이 주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양형일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김재균 민주당 의원, 김하림 조선대 교수,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대표,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세연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앞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도 26일에는 광주와 전남에서 열리는 지역대의원 대회 등에 참석해 당원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박주선 의원도 24일 광주를 방문했다.

이처럼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광주와 전남을 잇달아 방문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은 기초의원과 도의원, 기초단체장 등 당연직 대의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다 상당수 대의원이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해왔고 전당대회 관심도도 높아 이 지역 대의원 표심이 전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카터 평양 도착… 김정일 면담 관심

1994년 이어 두번째
김계관 공항 영접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석방을 위해 1994년 이후 두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와 그 일행이 2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비행장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맞이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이로써 미 정부도 공식적 언급을 피했던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처음 확인됐다.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의 석방을 위해 방북길에 올랐다는 내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는 구체적인 확인을 피해왔다.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그는 1994년 6월 1차 '북핵 위기' 당시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했다.

이번 방북의 표면적 목적은 지난 1월 북한에 무단입국해 8개월째 억류중인 곰즈씨의 석방 협상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 등 북미관계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평양 공항에 영접 나온 김계관 부상은 2004년 2월 이후 6자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를 맡아온 인물이어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배경과 관련해 여러 가지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MB만난 박근혜, 對北·中 특사설 '솔솔'

2008년 中특사 다녀와
친박계 "검토 해 볼만"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 또는 대중 특사설'이 정치권에서 거론돼 주목된다.

특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북한을 방문하고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 협의차 26일부터 방한하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천안함 출구전략'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특사설이 자주 거론된다. 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08년 1월 당선인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점과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박 전 대표의 이력도 힘을 싣는 요인이다.

친박인 유기준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남북관계나 대중관계 회복을 위해 특사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은 25일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의 근대화 작업에 성공한 박정희 리더십 때문에, 북측도 경제발전 운동 등 국가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와 만남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대북 특사에는 박 전 대표와 임태희 청와대비서실장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5일 지지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MB 개헌론은 정권연장 술책"

손학규 5·18묘지서 당대표 출마 밝혀

민주당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25일 "오는 10·3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집권의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집권 능력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보여줄 때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 비로소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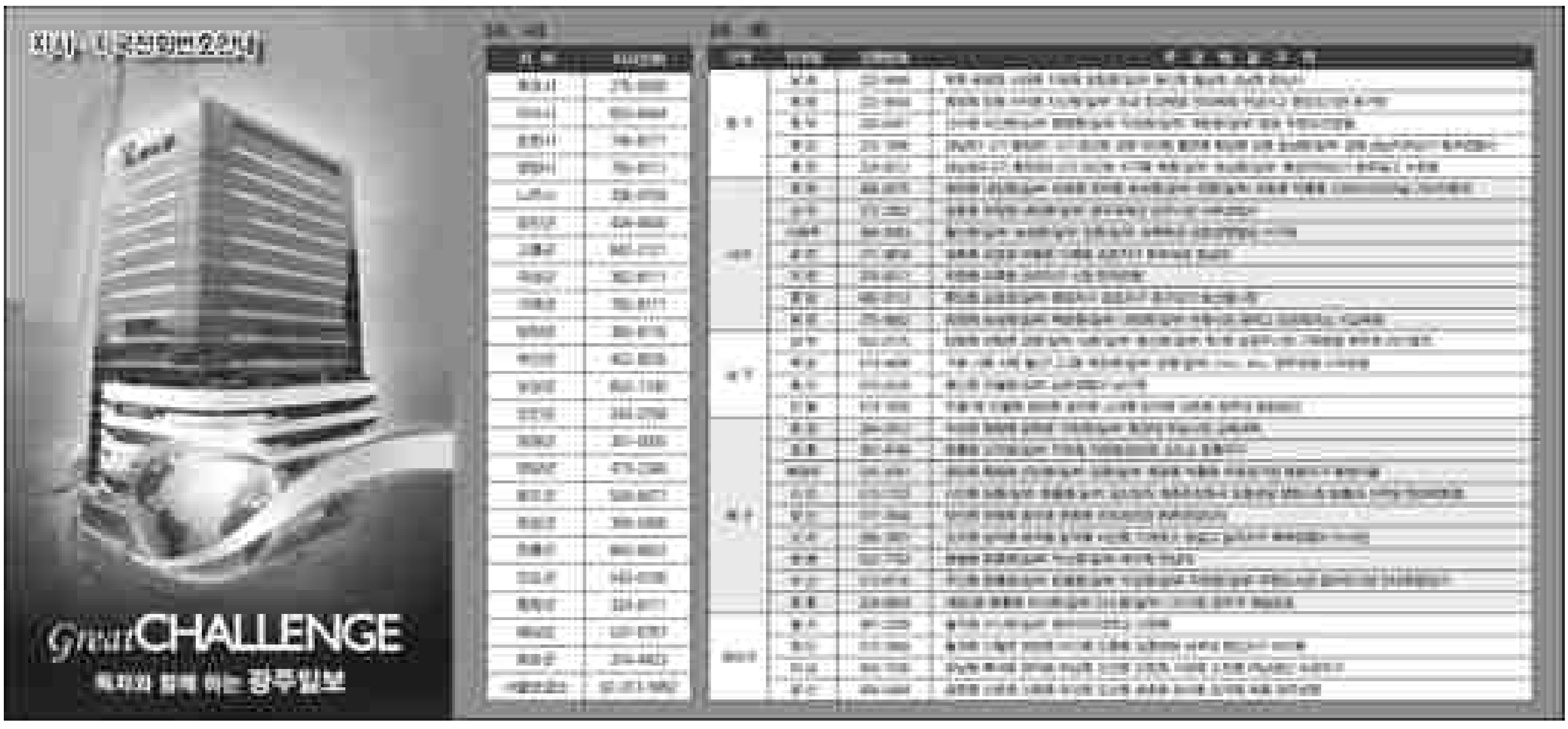
손 전 대표는 특히 이날 집권 연장의 술책으로 추진되는 이명박 정부의 개헌논의에 야합하고, 당권만 노리며 집권의지를 상실한 일부 민주(당내) 세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정의해 놓은 헌법을 정권연장의 차원에서 농단해서는 안되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라며 "정권 연장의 술책으로 추진되는 (여권의) 개헌시도에 야권이 결코 야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야합하는 행위가 있다면 민주세력의 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 개헌시도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3 전당대회와 관련, "적당히 자리를 나눠먹고, 제1야당이라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집권의지를 국민에게 선포하는 대회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집권능력을 키워 민주당이 나라를 다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어 당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확실한 집권 의지와 원칙만 있으면 지도체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이는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광주 영령들 앞에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자 왔다. 영령들 앞에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왔다"라면서 사실상 당 대표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지자 300여 명이 참석해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